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라

### - 1995년도 찬양대원 임명 -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와 오는 수요일 (14일)에는 1995년도에 봉사할 찬양대원을 임명한다.

찬양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모범을 보이며 온 교회와 목회에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현재 우리교회에는 6개의 찬양대가 있어서 주일 I, II, III부 예배와 주일 저녁의 찬양예배, 수요일 I, II부 예배를 돕고 있다. 특별히 찬양예배를 담당한 베들레헴 찬양대는 남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일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한 호산나 찬양대는 여성찬양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찬양대원 임명식을 마친 찬양대는 18일(주일)부터 각 찬양대별로 총회를 갖고 찬양대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 ■ 1995년도 찬양위원회

- 지도 최병호
- 위원장 노문환
- 서기 김중수    회계 오정수
- 위원 김광신    이남호    유복달    박정선

찬양대	대장	부대장	지휘	오르간	피아노
가브리엘	노문환	김세재	허희철	안진희	안선영
할렐루야	김광신	이태상	박정선	조은주	정은영,윤은숙
임마누엘	오정수	백수남	미정	정은원	한현숙
베들레헴	이남호	오형철	임훈규	유혜련	-
호산나	유복달	김윤자	서희숙	홍혜란	-
시온	김중수	김형택	김훈	이주은	-

▶ 지난 주일 '95년도 서리집사와 교구일꾼을 임명했다.

#### ■ 남은 연말 연시 행사들

- 찬양대 총회 / 18일(주일)부터 찬양대별로
- 교회학교교사 임명식 / 18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 교회학교교사 총회 / 18일(주일) ~ 24일(토) 교회학교별로
- 교회학교 졸업식 / 25일(주일) 교회학교별로
- 성탄절행사 - 성탄축하의 밤 / 24일(토) 오후 7시, 서초구민회관
- 성탄절 예배 / 25일(주일) I, II, III부 예배
- 송구영신예배 / 1995년 1월 1일(주일) 0시

#### ■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구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며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기 위한 움직임들로 교회도 사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맞는 무형의 경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고 영적 진보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월의 흐름이 신속하여, 날아감을 실감하는 때에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2).



### 스데반회 창립 총회

간사장에 김일용 집사



우리교회의 안수집사들이 복음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스테반회(가칭)를 창립하였다.

지난 12월 7일 수요일 II부 예배 후 총회를 통해 김일용 집사를 간사장으로, 서문석 집사를 총무로 선임한 후 이들의 제청으로 서기에 김영준 집사를, 회계에 성준경 집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이들은 11일(주일) 찬양 예배 후 임원회를,

그리고 18일(주일)에는 전체 모임을 갖고 1995년도의 스테반회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권사회 총회

회장에 양숙란 권사



권사회 총회가 12월 7일에 있었다. 95년도 회장에는 양숙란 권사, 부회장은 박순옥, 김종자 권사가 임명되었으며 이들의 제청으로 박경희 권사가 총무로, 최 완 권사가 서기로,


우선자 권사가 회계로 각각 임명되었다.

### 대학부 성경퀴즈대회

오는 주일(18일) 대학부 집회 시

대학부에서는 오는 18일(주일)에 1994년도 하반기를 결산하는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그동안 조별로 공부해 온 성경공부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한 문제를 10개 조에서 각 1명의 대표가 참석, 예선을 치른 후 본선에 오른 4명이 최종 결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회를  
진리로 기록하게어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17:17)

창세기 강해



#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8장 16절 ~ 33절)

이종운 목사

## 1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고 믿을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나 앞으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에서의 구원받을 여망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롬3:4)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음란한 도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동방의 네 왕들에게 패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멜기세덱의 증거를 들었고,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신앙을 보았으며,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롯은 어쩌면 그곳에서 증거자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이라는 말에는 ‘동성연애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만큼 소돔이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극악한 죄가 만연하였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악은 점점 심화되었고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마저도 조소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마치 노아의 심판과 같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씻기움을 받기 전에는 언젠가 반드시 도래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의한 자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자신의 불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우리 눈에 인간 세상이 조용하기만 한 것 같으나 이 세상이 요란하고 죄짓는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불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올 것입니다.

## 2.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는 몇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조심성있는 기도였습니다. 심판이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선택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만 했습니다.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패한 세상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일에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외쳐도 회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하는 소위 ‘선지자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성도의 책임은 오직 기도하는 데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타끌과 같다고 표현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27절).

셋째,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는 적어도 여섯 차례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설득력있는 기도였습니다.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역사의 방향이 전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 3. 열명을 위하여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라지가 있어도 알곡을 다 추수할 때까지는 그냥 두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악함으로 가득차고 불의가 횡행해도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는 것은 의인 몇 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라반은 야곱 까닭에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

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는 바울 까닭에 모든 사람이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성을 사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 가운데 의인이 있는 한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 의인 까닭에 주변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한덩이의 소금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한줄기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민족과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사역을 바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 까닭에 이 민족과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 누룩운동

천국은 여인이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누룩은 조용히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게 내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제도를 고쳐보면 사회가 변화될 줄 아는 것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이들의 오판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누룩운동을 이 사회 속에서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 천국복음 누룩운동 본부인 교회가 천국 복음을 확산시킴으로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잡아주고 부패한 부분은 도려내고 어둡고 그늘진 곳엔 빛을 비추어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진리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언어생활, 일상생활은 물론 경건생활에 까지도 새롭고 깨끗한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의 누룩을 던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신앙교실

# 교회력(教會歷)에 대한 이해

## 1. 교회력이란?

예배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교회력이다. 교회력에 의하여 예배의식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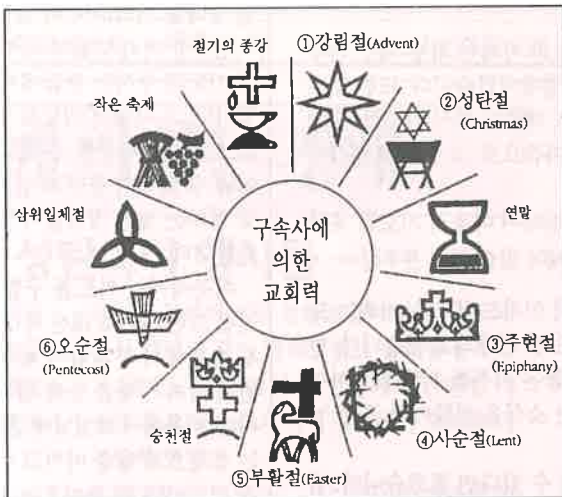
교회력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일요일을 주님의 날(The Lord's Day)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첫째로, 주일은 모든 교회력의 기초요 핵심이 되는 날이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따라 절기를 구분한 것으로 주님의 탄생, 죽음, 부활과 승천, 성령강림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해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그 깊은 뜻을 전하려는 데서 시작되고 발전해왔다. 따라서 교회력은 교회의 일년 행사와도 다르며 일반적인 한 해의 시작과도 무관한 것이다.

## 2. 교회력의 내용과 의미

개신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교회력을 지킨다.

- ① 강림절(降臨節, Advent) - 교회력의 시작은 강림절로부터 시작한다. 강림절을 뜻하는 영어단어 'Advent'는 '오다(to come to)'를 뜻하는 것으로 성탄의 뜻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절기는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되며 주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을 가다듬고 주님의 탄생과 오심에 관한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회개와 기도, 인내로써 이 절기를 지내야 한다.
- ② 성탄절(聖誕節, Christmas)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는 절기. 성탄절이 오늘에 와서 차츰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경

향이 있으나 성도들은 강림절의 정숙과 회개에 연이어 이 절기를 뜻 있게 맞이해야 한다.



③ 주현절(主顯節, Epiphany) - 현현절로도 불리며 '나타남'을 뜻한다. 빛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듯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다는 뜻이다. 아기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나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때 본능적으로 엎드려 경배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념하며 경배하는 현현절은 사순절 전까지이다.

④ 사순절(四旬節, Lent) -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40일간을 참회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⑤ 부활절(復活節, Easter) -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다른 모든 축일의 근원이며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로 축하된다. 50일간의 절기로 지켜지며 교회력 전체가 부활절의 날짜에 따라 정해지며, 부활이 주간의 첫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일이 안식일(토요일)에서 주일(일요일)로 바뀌었다.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기간이 된다.

⑥ 오순절(五旬節, Pentecost) - 부활 후 50일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감사하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과 증인의 삶을 재다짐하는 기간이다.

### ■ 강림절 단상 ①

## 모든 골짜기 높아지고 모든 산들은 낮아지리라

(이사야 40장 3절 ~ 4절)

교회력의 신년이라는 강림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 마다 돋우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 40장 3 - 4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닦고 준비함에 있어 먼저 땅을 고르고 평탄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매워야 할 골짜기 낮아져야 할 산과 언덕들이 많습니다. 절망과 어두운 계

곡에 있는 사람, 허무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신 주님(눅4:18)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마음의 교만의 산과 이기심의 언덕은 낮아져야 합니다.

강림절 기간은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령님께 우리 생활의 울퉁 불퉁한 면이 고르게 닦아 지도록 간구하는 기간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영광의 약속을 대망하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 ■ 이권 뭘까요?

## 예전 빛깔과 예배

▶ 강단 앞에 드리워진 천의 의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 빛깔도 가끔 바뀌는데 그것이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 구약 때부터 교회의 의식에는 언제나 특유의 빛깔을 사용하여 거기에 내포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 앞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색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전(禮典, Liturgy)에 있어서 색채의 사용은 한 때



부정되기도 했으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전 빛깔을 사용하여 예배의 시각적(視感的)요소를 되찾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빛깔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 색채의 사용은 교회력을 따라 하되 설교대, 교독대, 제단에 드리우고 목사님의 가운 위에 드림천으로 드리우기도 합니다.

예전 빛깔과 그 의미, 사용 시기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색	상징	사용절기
보라색	위엄(dignity)	강림절(대강절), 수난절
흰색	성결(purity)	성탄절, 성목요일, 부활절
붉은색	보혈(blood)	수난주일, 오순절
초록색	성장(growth)	성령강림절부터 대강절까지

## 답지하는 연말 인사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감사와 문안의 글들이 답지하고 있다. 함께 읽어보며 올해에 힘써 온 선교와 구제의 일들이 계속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자.....■

★계절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여름이 꼬리를 내리운 제주는 아름다운 이국 섬 그대로입니다. 왜 모든 제주 사람들이 시인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서울교회의 전 당회원들과 목사님께서 저희 아세아 방송 제주 본부에 찾아 주신 것은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오르간을 봉헌해 주셔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에 와서 기도한 것 중 가장 빠른 첫번째 응답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뜻을 오르간에 붙여 두었습니다.

전 직원들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세아 방송 제주 본부장 -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평안하며 이곳에 장로교회를 통한 사역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도 평안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후를 위해 기도하며 저희 교회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남북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12월에 방글라데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집을 대여행 할 길이 없던 차에 귀 교회의 헌금을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방글라데시에서 바로이 목사 -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 동생과 국민학교 4학년인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세남매에게는 부모님이 안계십니다. 소년 가장이란 말을 들으며 국가에서 주시는 후원금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식구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 전합니다.  
- 우먼동에서 재진 올림 -

★귀 교회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 생각...  
- 체코에서 파블로 체코 선교사 -

★우리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말라위에서 갈보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건축하고 있는 두 교회의 진행사항을 사진으로 보고합니다. 다시금 아프리카 형제들의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목사님께서 이곳 말라위에 방문해 주실 것을 열망하고 있음도 전합니다.  
-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이삭 캄와나 목사 -



### 서울주간기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9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 각 부서들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3.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바르게 준비하는 기간이 되도록
4.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성탄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쓰는 지금은 10월. 이곳 아프리카 땅은 건기라 타는 듯한 열기와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고국의 겨울과 풍성한 성탄절 경배를 기억하며 이 글을 씁니다.

연약한 저의 믿음과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기도로 인해 힘들고 외로운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낙심도 벗어날 수 있으며 불안과 염려가 기쁨으로 화하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카드를 구할 수 없어서 직접 그린 것으로 대신 하려 합니다. 너무 초라해서 무례함이 될까 걱정되지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 보내드립니다. 이곳에서 해질녘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일을 마치고 삼삼오오 줄을 지어 집으로 돌아오는 아낙네들의 모습입니다. ...중략...

- 우간다에서 임 정 미 선교사 -



### ▶ 광야의 소리

## 십자가

겨울이 깊었으니 한 해가 또 간 것이다. 홀연히 앞서 가신 유장로님을 생각하면 인생은 산다기 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여정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올 한 해동안 어떤 죽음을 준비했었는가.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살아 생전에 갈 곳은 어디인가. 아! 십자가. 우리는 오래도록 그 십자가를 잊고 살았다. 인간의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골고다에 높이 세운 십자가를 우리는 왜 잊었던가. 삶의 질곡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행복자가 아니던가.

3년 전, 우리의 눈물과 상한 마음 위에 당신의 전을 세우신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며 말할 수 없이 우리를 후대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서로 사랑 하라고 하신다.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